



한국불교학회 여름 워크숍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8월 8-9일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 여름 워크숍이 본사 부설연구소에서 개최됐다. 한국사회에 대한 불교적 진단을 시도한 이번 워크숍은 불교의 참여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불교학)의 '불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 줄기세포 연구'. 참석자들은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김 교수의 불교적 고찰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운영해 동국대 교수(불교학)는 한국 기독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불교 발전의 길을 모색했고, 정기문 강원대 교수(경제무역학부), 이동한 충북대 명예교수와 서재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은 각각 경제·정보화·환경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뤘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북한문제와 관련한 분석을 제시했다.

불교의 눈으로 본 한국사회는?

●유전자 조작, 윤리 문제였다

김성철 교수는 해박한 의학적 식을 바탕으로 줄기세포연구 절차를 세세하게 설명하며, 불교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복제인간이 탄생한다 해도 불교의 업 이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대목.

김 교수는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유전자 조작이 문제될 것은 없다"며 "오히려 과거의 미신적 생명관에서 벗어나 무상·무아·공·연기의 진리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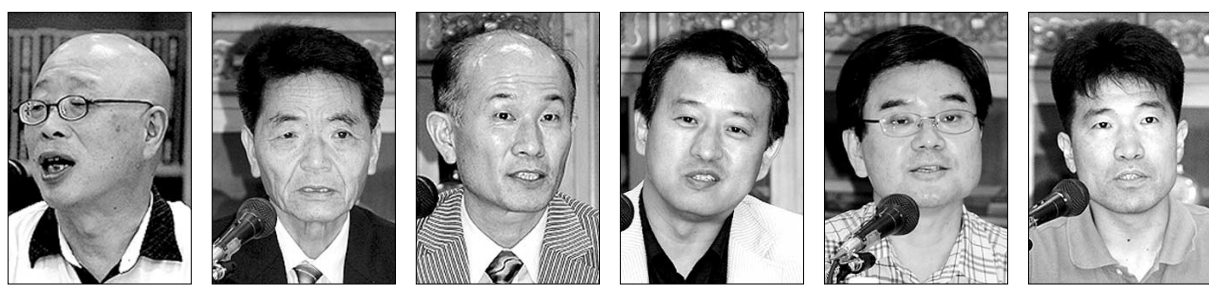
다만 유전자 조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생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 중용신이 부작돼 형성된 생명체이기 때문.

하지만 "황우석 교수(서울대 수의학과)의 연구방법에서는 정상적인 수정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살생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난자와 정자 결합이 아닌,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줄기세포를 얻는 황 교수의 연구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수정란은 자궁내벽에 착상도 되지 않을뿐더러 생명체로 발전하지도 않는 유사(擬)수정란이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사수정란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 무고하게 죽어가는 실험용 동물이나 가축들에 대한 살생에 비해 바가 못 된다"고 밝힌 김성철 교수는 "윤리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육식을 금하고, 동물실험도 모두 중지하는 것이나 그런 최선의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차선책이라 할 수 있는 살생 약업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제인간에 대해서는 "나와 시간을 달리하여 탄생하는 '일란성 쌍둥이'로서 '신체를 이루는 업종자(業種子)'란 나와 유사한, 독립적 인격체로 보면 된다"고 설명하며, "복제 자체의 문제보다는 인간이 장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약용할 가능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욱 고려대 강사는 "불교에는 오의경(五義經)과 불요의경(不了義經)이 있어 중용선에 관해 쉽게 합의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용신 개념에



정기문 교수, 이동한 교수, 운영해 교수, 김성철 교수, 고유환 교수, 서재영 연구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중용신을 생명과 별개가 아닌 생명의 한 단계로 설명하는 티베트 종카파 스님이 중용신 개념을 회통한 바 있다"며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독교 성공요인 '봉사'

운영해 교수는 필리핀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인 한국에서 기독교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며, 종교발전의 전망을 내놓았다. 윤 교수에 따르면 기독교가 한국에서 급

인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같은 현상이 불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윤 교수는 "불교가 무소유의 승가제 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개인적 위안거리 서비스에 안주하며 시대의 불에 과감하게 맞서 싸우지 못한다면, 그리고 집단적 이기심에서 벗어나 환경·생명·통일·분배 등 사회현안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퇴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토론에서는 문화재관료로, 불교시 통과 의례 등 불교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가능한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다"고 해석하며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장제일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윤희사상을 끌어들이며 대안을 찾았다. 즉 "생산량의 증가, 물질적 풍요 등 직선적인 성장 개념에 따르면 성장제일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뒤, "윤희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환이 원활한 건강한 경제"라며 "경제의 순환성을 인식해야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화" "기술의존적 삶" "소비문화"를 현대한국사회의 주된 현상으로 규정하며, 생태철학적 접근을 시도한 서재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은 "도시화가 일회적 소비와 재생능력의 폐기로 이어진다"며 "자연과 동화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템플스테이와 단기출가 등을 통해 불교적 삶의 양식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과 불교사상의 친연성에 초점을 맞춘 이동한 교수는 "컴퓨터 운영시스템은 불교의 유식론에서 말하는 인식의 사분설(四分說)과 흡사한 모형으로, 인간이 가까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유식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전문가 고유환 교수는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관계국들이 제로섬(Zero-sum,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쪽은 손해보게 되는 상태)이라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불교의 가르침인 상생과 공존의 논리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김성철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고찰' 주목 받아

종교·경제·환경·생활방식·윤리 문제 진단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은 △기독교를 통해 미국문화를 이식하려는 미국의 책략 △미국에 의해 기독교인인 이승만이 선택된 정치적 상황 △기독교가 근대문명과 동일시 된 △문화적 사대주의 △선교와 사회봉사에 치중한 공로 등이다.

이 가운데 윤 교수는 특히 기독교계의 교육·의료 분야 봉사를 높이 평가했다. 즉 기독교의 고도성장은 한국사회 현안에 기독교가 헌신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에 반해 불교 등 전통종교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그런 헌신적 노력은 90년대 들어 이기적 욕망충족으로 변질되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역기능은 종교가 외면당하는 원

문화재관료와 관련한 한 참가자가 사찰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찰이 많으며 문제를 제기하자, 운영해 교수는 "문화재관료 통령장수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며 부정적 효과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철 교수는 "에스키모가 전통을 잃게 된 결정적 계기는 캐나다 정부의 지원금이었다"며 "외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본인의 생명력은 잃게 된다"는 말로 포교와 수행 등 사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불교적 경제 운용방식은?

정기문 교수는 경제운용방식에 불교적 개념의 도입을 시도해 관심을 모았다.

정 교수는 "무소유란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실현 불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2>

윤희와 영생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인간의 줄기세포를 체세포(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 분화된 세포)로부터 배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 기술적 발전이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리카락, 뼈와 같이 각 부분으로 분화되기 전인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즉 몸의 어느 부분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은 세포의 노화나 암 등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람의 사망이 몸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사망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어느 한부분의 노화나 이상에 의해서 초래된다는 점에서 줄기 세포의 가능성은

적은 우려, 그리고 계속 분열을 시키는 경우 결과물로서 인간이 복제될 수 있는 점(최근에 개는 복제했다)에서 큰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복제를 창조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서 싫어한다. 인간뿐 아니고 삼라만상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전통을 가진 불교에서 생명 복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상스러운 일이다.

아마, 생명복제라는 과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와 깨침의 전통과의 접점을 찾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무한히 자기의 DNA같은 생명체를 계속 만들어 내는 것과 인간이 추구했던 영생은 같은 개념일까, 다른 개념일

고장난 장기 갈아 끼우는 시대 눈앞에

무한히 죽지 않고 산다고 행복할까?

엄청나다. 이상이 생긴 세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장기를 당사자의 줄기세포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면, 사람의 수명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세포노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스스로의 수명을 아는 세포의 메커니즘을 속이는 방법발견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는 이유다.

줄기 세포 배양에는 인간의 난자가 이용된다.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배양하고자 하는 세포핵을 삽입한 후 전기 충격 등을 행해 주면, 세포핵은 자기 배아 세포인 줄로 착각하고 다시 분열을 진행한다. 실험을 위해서 난자를 이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윤리

가, 자기의 체세포로 복제된 눈이나 귀, 그리고 뇌세포를 갈아 끼움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인간의 '고'는 없어지는 것일까.

십년 전만 해도 하지 않아도 될 고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다. 불교도에게는 다시 한번 부처님 법에 대한 진진적인 이해의 단초를 제공할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자. 과연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추구했던 영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한히 죽지 않고 산다는 가능성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숙제에 부딪힐수록, 육체가 나고 죽는 것이 생사가 아니라 한 생각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을 생사라

자네, "우리동창"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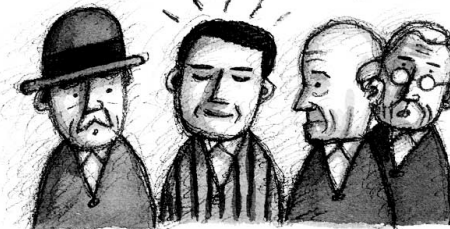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2005학년도

불교지도자 과정 제6기(3년)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 목	제 출 서 류	개 설 경 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반, 통산 240명)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화엄경 약찬게, 유식 30송	환안스님, 묘주스님
대승경전학과 (주간, 통산 220명)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삼국유사	김상현 교수
근본불교학과 (주간, 통산 2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인반수의경	최종남 교수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 서 교 부 · 접 수	강 의 일 시 및 장 소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5년 8월 1일 ~ 9월 5일 (월)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5년 9월 5일(월), 6일(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5년 9월 8일(목) 오후 4시
• 대승경전학과 : 2005년 9월 6일(화) 오후 2시
-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한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 3년과정) 9월 6일 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 출 서 류	원 서 교 부 · 접 수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주간반, 통산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봉 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불교학과] 2005년 8월 5일 ~ 9월 5일 입학금 200,000원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 티베트어강좌(20명)			

전형방법	강 의 일 시 및 장 소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8월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 8월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 : 9월 6일(화요일) 개강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학과) : 9월 7일(수요일)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문학과) : 9월 8일(목요일)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례문화학과) : 9월 6일(화요일)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티베트어강좌) : 9월 8일(목요일) 개강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2005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과 정	기 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일정규반	2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40분)	만촌스님, 문중순법사	이론, 실기
• 수요일야간반	2년	매주 수요일(오후 7시~9시)	양성도, 민명중법사	실기
• 목요일주간반	2년	매주 목요일(오후 12시~1시40분)	문중순 법사	실기
• 바 라 반	2년	매주 금요일(오후 3~5시)	지도스님	실기

모집인원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 서 교 부 · 접 수	강 의 일 시 및 장 소
• 정규반 30명(2년) • 바라반 30명(2년) • 주간반 20명(2년) • 야간반 20명(2년)	• 한글불교의식 회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5년 9월 3일까지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3:00 ~ 5:40 •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야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3:00 (바라반)

- 3. 개강일시 2005년 9월 3일(토) 오후 4시30분(정규반) 7일(수) 오후 7시(야간반) 8일(목) 오전 12시(주간반) 9일(금) 오후 3시(바라반)
-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 5.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